

# 2025년 3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3/2	[뉴스특보] 간첩 25차례 언급...부정선거론 들며 "어떤 부분이 내란이냐" [뉴스특보] 반중 넘어 노골적 혐중 표출...이주민들은 불안	
최미연	3/9	[뉴스특보]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뉴스프라임] 검찰, 명태균 소환 조사..."정치인 관련 내용 확인"	
임윤주	3/16	[토요와이드]"한 마리도 없어요" 멧게 대량 폐사..."고수온 때문" [일요와이드]충성없는 반도체 전쟁...주 52시간, 기업에 족쇄됐다	
김홍태	3/23	[뉴스1번지] 가성비로 미국 잡았는데..."자동차 관세" 현실화 우려 [뉴스13]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안지연	3/30	[뉴스10] 닷 올린 넷플릭스 일일예능...예능 판도 바뀐다 [뉴스워치] 66세 이상 은퇴인구 상대적 빈곤율 40%...OECD 1위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3/2(일)	임윤주	다음은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탄핵 반대 시위자 구속과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안씨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안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려 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안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경찰서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 모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기사 제목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과 동일하게 방송 자막에도 캡틴 아메리카만 기재되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연합뉴스TV 보도에서는 보도 내용 및 제목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본 보도의 제목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개봉 중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에 글자수 제한이 있다보니 기사와는 달리 '복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오해의 소지 없게 정확히 표현해주는 게 맞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2025 3/9(일)	최미연	중앙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과 외부 감시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안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용 실태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현재는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과 감사원의 감찰, 현재의 위헌 결정까지의 과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입장과 현재 결정의 논리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통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강조해왔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포함되면 보도에 대한	지적해주신 말씀 유념해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 심층적으로 다뤄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	--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선관위와 감사원 간 감찰 권한 충돌 사례를 보강하여 설명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3/16(일)	임윤주	다음은 AI 제작앱에 대해 보도한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숏폼 광고에서는 두 남녀의 사진이 각각 올라오더니 갑자기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아이유와 차은우 등 유명인이 나온 광고 영상도 있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니 이런 AI 영상 제작앱이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이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해도 처벌되지만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광고로 내건 앱이 곳곳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민형사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 조작이 ‘일상화’된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가가는 “선정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쉽고 재밌게 영상 조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딥페이크 피의자 중 96%가 10대와 20대로 집계된 가운데, AI 성범죄 영상 제작이 갈수록 쉬워지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보도에서는 기자가 직접 앱을 다운 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보도에서 지정한 영상 조작의 일상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였습니다. 그 밖에도 본 보도는 전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	얼마나 쉽게, 자극적인 영상이 제작 가능한지 보여주려다 보니 제목이 다소 선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게 뽑힌 것 같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히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데요. 최근 SNS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숏폼 광고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련 규제의 미흡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서는 대책 마련의 시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짜임새 있는 보도에 비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아쉬웠습니다.	
2025 3/23(일)	김홍태	지난 16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해 2만6천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많았는데요,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 중 ‘뒷광고’의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 보강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뒷광고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후기처럼 가장하는 기만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뒷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소비자	용어에 대해 시청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현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플랫폼인의 비율과 업종별 분포를 제시하면 현황이 좀 더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그리고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향후 규제 방향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정 플랫폼이나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성 게시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예시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에 대한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p>	
2025 3/30(일)	안지연	<p>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넷플릭스가 지난달부터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서는 새롭게 선보인 5편의 예능 프로그램은 30분 내외의 콘텐츠스를 가볍게 제작한 포맷으로,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그중 일부는 넷플릭스 시청 순위 6,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로 제작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이 기존에 공개된 작품과의 차별점이라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넷플릭스로 인해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예능프로그램 시청도 자연스럽게 OTT로 옮겨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도해 온 예능 프로그램의 영역도 이제는 OTT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지상파도 장수 프로그램에 기대기보다,</p>	<p>지적 감사합니다. 이번 보도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예능 위주로 제작하던 OTT가 소소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뛰어들면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p> <p>일단 이번 보도에서는 이러한 기류 변화에 대해 담았다면 앞으로는 좀더 플랫폼 관계자나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예측하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플랫폼과 콘텐츠의 흥수 속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매체 역시 방송사로서 이를 세밀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말씀 주신 부분도 앞으로 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OTT 콘텐츠 소비와 제작 방식 변화의 흐름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 소비자들의 이용 방식과 플랫폼 전략, 전통 방송과의 차이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OTT의 이러한 편성 전략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도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OTT 중심으로만 내용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랫폼 관계자나 콘텐츠 제작자,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면 콘텐츠 전략 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내용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3. 0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9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관한 연합뉴스TV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설명하겠다고며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선관위가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부정 투표 용지 등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낸 사안이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언급하면서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차례에 걸쳐 '간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전문 전달은 물론 전문가 의견 및 정치권 반응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변론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에 집중했는데요. 이처럼 연설문이나 진술문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요 단어 빈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변론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의 선고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이 담긴 깊이 있는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혐종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주한중국대사관으로 들어가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경찰이 저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 그는 본인의 SNS에 "혐종 여론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집회가 열린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인이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주장한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음모론이 반중 감정을 자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합리적 비판이 아닌 혐오는 갈등과 분열을 낳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양측의 주요 주장과 모습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주요 시위 장소의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탄핵 반대 시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해 전하며,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는 이미 '중국 배후설'과 그에 따른 반중 정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 말미에서 지적하였듯, 합리적 비판이 아닌 혐오로 굳어지고 있는 반중 정서는 탄핵 정국 이후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탄핵 반대 시위자 구속과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안씨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안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려 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안

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경찰서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와 기사 리포트 모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기사 제목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과 동일하게 방송 자막에도 캡틴 아메리카만 기재되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연합뉴스TV 보도에서는 보도 내용 및 제목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본 보도의 제목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공롭게도 현재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개봉 중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행 상품의 추가 비용에 대해 보도한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인당 400만 원씩 3인 가족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며칠 뒤 가격이 다소 오른 걸 발견했습니다. 여행사에 문의하니 추가금은 인당 10~20만 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비행기 값이 올랐다면 거의 1천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항의했지만, 싫으면 취소하라며 여행사는 5% 이상이 변경되면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사는 처음 안내가 잘못 나간 점을 사과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애초에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비자원 상담도 해봤지만 "규정상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숙박 요금은 5%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 근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 변화로 인해, 사전 예약한 여행 상품 비용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현재까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외환 위기를 포함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시기는 세 차례에 불과해, 지금과 같은 고환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뉴스는 약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공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 했으나, 그 구성과 성격을 놓고 의료계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각 대학 자율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 사이에서 증원이 결정

될 전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대 학장들은 전국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공문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증원에 대비해, 교수 추가 채용과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일정 숫자 이상의 증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엔 학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 합격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의대 정원이 어떻게 확정될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본 보도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정원 확정 계획, 즉 추계위의 4월까지의 계획을 설명하고, 해당 타임라인이 변경된 이유와 함께 현재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어 관련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3.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중앙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과 외부 감시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안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용 실태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현재는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과 감사원의 감찰, 현재의 위헌 결정까지의 과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입장과 현재 결정의 논리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통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강조해왔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포함되면 보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선관위와 감사원 간 감찰 권한 충돌 사례를 보강하여 설명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 분석이 완료되면 추가 혐의는 물론, 수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은 명태균씨를 소환 조사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접촉 여부,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명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로, 검찰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정치인들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명 씨에게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오 시장을 총 7차례 만났으며, 그중 4차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거래 의혹이 점점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를 통해 보도된 이 기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는 수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첫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법적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탄핵 찬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대학 곳곳에서 탄핵찬반 집회가 열렸고, 고려대에서는 졸업식 날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화여대에서도 찬반 양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며 격렬한 대립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화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찬성·반대 측 참가자들이 뒤섞이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유튜버 등 외부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학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일에도 서울 시내와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게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을 촉구했고, 반대 측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전국 33개 대학이 연합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으며,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5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상에 올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 캠퍼스 내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며 양측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부인이 학내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할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학문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일부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대학 내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 보도를 통해 갈등의 확산과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인해 집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조명하면서, 탄핵 심판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감이 대학가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부 세력 개입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찬반 양측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대학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균형적 보도를 위해 대학 관계자의 공식 입장, 학생 인터뷰 등을 추가하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도 마약에 다수 노출되어 있으며, 유명인의 자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약 문제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녀가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판매한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유학, 여행 등을 이유로 입국했으나,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은 베트남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6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보도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보도의 균형성과 심층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사건의 경우,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의원의 사과와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 검거 사건의 경우, 외국인 범죄를 오히려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마약 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정부의 대응책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3.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아직 3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토요와이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은 우리나라 멍게 최대 주산지로 꼽히는 곳으로, 수확 작업이 한창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바닷가가 한산합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알 굵은 멍게들이 녹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평년 30% 안팎이었던 멍게 폐사율은 97%까지 치솟았습니다. 출하할 멍게가 없다 보니 첫 경매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초매식이 열리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영과 거제 일대에 피해가 확인된 어가만 250여 곳에 이릅니다. 수협 측에선 냉동 멍게로 시장 수요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온이 낮은 대체 어장을 조성하고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우량종자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양식 재해보험 요율이 오른 점도 어민들에겐 부담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상기후 관련 보도를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문제는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문제로서, 연합뉴스TV의 지속적인 보도는 주요 의제 설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이상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전했습니다. 멍게 폐사율을 평년 대비 수치를 통해 전달하고,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비어 있는 그물을 보여주는 등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점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작용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전한 완성도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상기후 관련 문제들은 범위나 규모가 커, 자칫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낄 수 있는데요, 본 보도와 같이 나의 삶에 중요한 의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체의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 입장을 살펴본 <일요와이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는 10여 년 전 반도체 연구개발 부서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일명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2년 정도 걸리는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성능 검증과 양산까지 쉬 없이 달렸습니다. 그 결과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5%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7년여 전, 주 52시간제를 모든 산업과 업종에 ‘일률 적용’했

습니다. 그 사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잘하던 D램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바짝 추격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만 근무 시간 축소에 묶여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서라도 근로시간과 야근, 휴일 근무할 것 없이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 연구 부서 4곳 중 3곳이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근무 시간 연장, 다시 말해 부지런함이 진짜 해결책이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특별연장근로제와 기업 내 선택근로제 등 집중 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 52시간 규제를 풀면 장시간 근무로 연구 개발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보도였습니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규제 관련 논쟁이 일어난 배경까지 매끄럽게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 말미에는 산업계의 또 다른 목소리, 즉 근무시간 규제와 성과 간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도 중간에 인용하였던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자 직급이나 부서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면 본 보도가 전달하고자 했던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계 입장을 전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시작된 지 6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후 5년간 우리나라 월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63.9시간에서 2023년에는 156.2시간까지 떨어진 겁니다. 1년 단위로 보면 1,900시간이 안 되는 수준인데,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 155시간, 월 13시간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근로시간을 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예외가 생기면 결국 다른 업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에 앞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본 보도는 앞서 살펴본 산업계 입장을 전한 보도에 이어 노동계 입장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배경을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월평균 근로시간 변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다른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졌으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보도는 개별 뉴스로서도 가치가 있고, 함께 살펴볼 때는 짜임새 있는 시리즈 보도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두 보도에 이어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여한 대립에 대한 보도도 전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않

았더라도 관련 보도를 검색했을 경우,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 입장까지 정리한 완성도 있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팝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지드래곤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랫말 중 우리 말은 단 4.4% 나머지는 전부 영어입니다. 아예 한국어가 없는 노래도 많습니다. 신라 시대 유물과 불교의 선 사상을 소개하며 주목받은 블랙핑크 제니는 이번 앨범을 영어 노래로 채우고 한국 팬들을 위해 따로 해석 영상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빌보드와 영국 싱글 차트에서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방탄소년단 지민의 '후' 같은 영어 곡들이 신기록을 세우며 장기간 순위권에 오르는 건 현재 K팝의 목표와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음악평론가는 "K팝 시장이 이제는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가사를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없는 노래가 K팝일 수 있느냐는 물음도 커질 전망입니다. K팝의 영어화 문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문화계, 학계 등에서 주요 논의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K팝의 정의, K팝의 정체성, 나아가 K팝의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K팝 시장의 주요 주체인 소비자로서 대중들이 해당 논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도 말미에서 기자가 언급한 '한국어 없는 노래가 K팝일 수 있느냐'는 물음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학문적 혹은 정책적 논의가 아닌 대중적으로 공론화해볼 수 있는 물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보도에서 설명했듯, 현재 K팝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다양한 시선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AI 제작업에 대해 보도한 <뉴스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숏폼 광고에서는 두 남녀의 사진이 각각 올라오더니 갑자기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아이유와 차은우 등 유명인이 나온 광고 영상도 있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보니 이런 AI 영상 제작앱이 수도룩합니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이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해도 처벌되지만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광고로 내건 앱이 곳곳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민형사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영상 조작이 '일상화'된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가는 "선정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쉽고 재밌게 영상 조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딥페이크 피의자 중 96%가 10대와 20대로 집계된 가운데, AI 성범죄 영상 제작이 갈수록 쉬워지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보도에서는 기자가 직접 앱을 다운 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보도에서 지적한 영상 조작의 일상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였습니다. 그 밖에도 본 보도는 전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데요. 최근 SNS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숏폼

광고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련 규제의 미흡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서는 대책 마련의 시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짜임새 있는 보도에 비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아쉬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3.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6일 뉴스 1번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보름 뒤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면서, 한국차가 미국에서 동급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인기를 이어왔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성비' 전략을 유지하려면 관세 상승분만큼 판매가를 내려야 하는데,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투싼은 미국에서 압도적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련된 외관과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가족용 차량으로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기아의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지난 한 해 미국에서 투싼은 20만6천대, 스포티지는 16만대가 팔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판매가를 내릴 경우 현대차 기아의 손실은 총 10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면 관세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기 이익률을 좀 낮추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면서, 중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답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계획인데요, 기아 미국 법인 측은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일감 유지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 대미 수출액 가운데 27%를 차지한 주력 수출 상품으로 우리 정부도 관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통상 대표는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지수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가성비' 전략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소비자 가격 인상 폭과 이에 따른 판매량 감소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외 다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계획인지, 대안 전략도 소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함께 관세가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협력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감 조성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부과로 인한 위험성 외에 기업들의 대응 방안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 소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기에 현지 생산 효율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해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13에서는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A씨는 본채용이 거부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수습사원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에 따른 기업의 정당한 해고 요건이 문제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도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선례가 될 수 있어, 기업들도 수습사원 계약 체결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법적 용어와 절차에 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의미와 절차적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 또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와 정규직 전환 거부 시 필요한 합리적 사유의 구체적 기준 등을 간단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기업은 수습 기간 평가 시 객관적 기준과 소통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일요일이던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해 2만6천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많았는데요,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 중 '뒷광고'의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 보강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뒷광고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후기처럼 가장하는 기만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뒷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플랫폼인의 비율과 업종별 분포를 제시하면 현황이 좀 더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향후 규제 방향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정 플랫폼이나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성 게시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예시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에 대한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이던데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또 다시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내놓은 저출생 정책 3가지가 만남부터 결혼에 이어 출산과 육아까지 이른바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이 3가지 정책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커플 축제 '이어드림'입니다. 인천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 24세에서 39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00명씩 1년에 5번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신원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보장하고, 연인이 돼 3개월 이상 만나거나 결혼까지 이어질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고했다는데요, 인천시청 광장 등 15곳의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100만원 상당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맺어드림'. 그리고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최대 1,040시간까지 아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길러드림'도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 지급하는 '아이+ 1억 드림'과 '천원 주택' 등 기존 정책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출생 정책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맺어주고, 집드림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오고, 1억을 또 드리고 여기에 차비드림, 길러드림까지 해서 인천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6종 세트를 현재까지 완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등 제작년부터 내놓은 잇단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전년 대비 서울 등 7개 특별, 광역시 모두 인구가 줄었지만, 인천시는 2만4천704명이 늘었다면서, 출생아 수 역시 전년보다 11.6% 늘어,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방송 중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결혼과 육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인구 증가와 출생을 상승이 실제로 인천시 정책의 직접적 효과인지, 아니면 기업 유치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해서도 보도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는데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드림' 등 축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 신청 절차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안내도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자의 실제 사례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3.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용자들은 비교적 호흡이 짧고 다양한 소재를 다룬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요일제 예능'을 통해 기존 방송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넷플릭스가 지난달부터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서는 새롭게 선보인 5편의 예능 프로그램은 30분 내외의 콘텐츠를 가볍게 제작한 포맷으로,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그 중 일부는 넷플릭스 시청 순위 6,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로 제작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이 기존에 공개된 작품과의 차별점이라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넷플릭스로 인해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예능프로그램 시청도 자연스럽게 OTT로 옮겨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도해 온 예능 프로그램의 영역도 이제는 OTT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지상파도 장수 프로그램에 기대기보다, 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OTT 콘텐츠 소비와 제작 방식 변화의 흐름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 소비자들의 이용 방식과 플랫폼 전략, 전통 방송과의 차이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OTT의 이러한 편성 전략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도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OTT 중심으로만 내용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랫폼 관계자나 콘텐츠 제작자,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면 콘텐츠 전략 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내용이 전달될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인층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영양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뉴스워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국가통계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상대적 빈곤율과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보다 0.1%p 올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청소년층과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은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층과 65세 이상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도 언급되었는데요, 연령대별 영양 상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도 상기시켰습니다. 보도는 국가통계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전해 신뢰도는 높였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먼저, 보도에서 전

달한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시청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나 사회적 배경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빈곤율을 전하며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영양 상태에 대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이 맥락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지 않아 각 지표의 관련성이나 보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표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함께 설명했다면 보도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치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해석을 덧붙였다면 지표가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을 시청자들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단순한 통계 결과 나열을 넘어, 이에 대한 설명적 요소를 덧붙여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강동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인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05건이라고 전하며 하수도 손상이 336건으로 가장 큰 원인이며, 지반 다짐 불량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반복 발생 지역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서는 지반 보강과 차수 공법의 철저한 적용과 지하 정보를 시각화한 3차원 지질지도를 통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땅 꺼짐 현상의 원인과 지하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사고 보도를 넘어, 하수도 노후화, 지반 다짐 불량, 대형 지하 공사의 영향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짚어내며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과 지하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지반 보강, 차수 공법, 3차원 지질지도 등의 기술적 대안도 제시하며 단편적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까지 함께 전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나 과거 유사 사고와의 비교도 포함되었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반복되는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내려졌고 국가 소방동원력도 발령됐는데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연합뉴스TV

는 지난 26일, 전문가와 함께 상황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대담에서는 먼저 불길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며칠째 강풍이 잦아들지 않는 환경적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화작업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헬기나 조직 등 산불에 대응하는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부족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의 부재나 재난 문자 발송 체계의 미흡성도 지적했는데요, 고령의 경우 재난 문자로는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직접적인 조력을 통해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와 대피 경로를 지정해 이동 장소를 안내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피 시 유의사항도 전했는데요, 산불을 직접 마주해 대피할 때에는 산불 진행의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복사열과 뜨거운 연기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바위나 개활지, 도로 등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옥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평지나 나무 등 가연물이 없어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도심지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KF94 정도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마스크가 없다면 물에 수건을 적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담은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단순 재난 보도로 소비하지 않고, 화재 진압의 상황적 한계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불 확산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바람의 방향, 피신 위치, 대피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며 재난 보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와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도 덧붙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상황 전달을 넘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보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2025년 3월 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5년 3월 9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5년 3월 16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5년 3월 23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5년 3월 30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